

고흥 도화·봉래·동일 42년만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

과도한 규제 등 주민 불편·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거금도 적대봉 등 9.475km²는 국립공원 신규 편입

고흥군의 도화·봉래·동일면 일원이 42년 만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된다.

18일 고흥군에 따르면 1981년 도화·봉래·동일면 일원 120.327km²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수십 년 동안 과도한 규제로 사유 재산권 침해와 각종 개발 사업의 결림돌로 작용해왔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육지부가 추가로 해제된다.

환경부는 우수한 생태 경관과 흰꼬리수리, 팔색조, 구렁이 등 멸종위기종과 특정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2011년 지정

한 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이 포함된 9.475km²를 국립공원으로 신규 편입시켰다.

동시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구역인 도화·봉래면 일대 농경지, 임야 등 보전 가치가 낮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대상으로 확정하고 5월31일자로 고시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나로도지구 지정면적 120.327km² 중 약 5.4%에 해당되는 6.435km²가 해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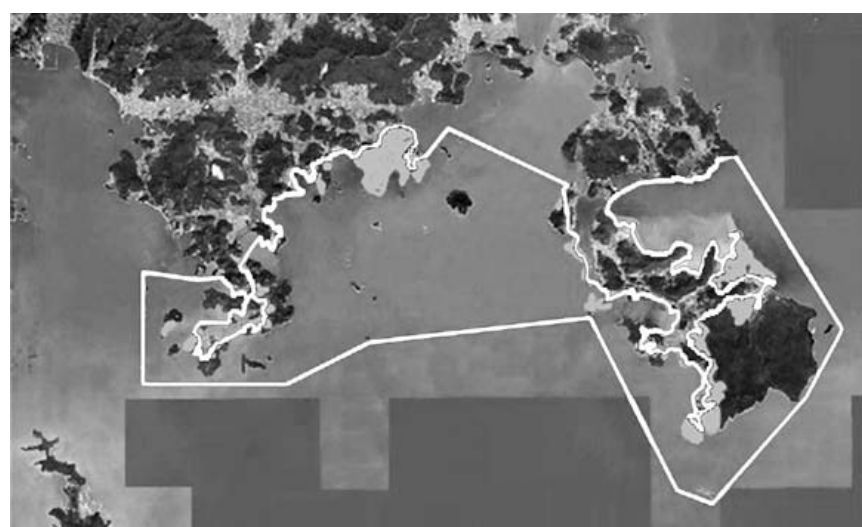
특히 육지부의 경우 24.713km² 중 약 26

%에 해당하며 전, 담, 임야 등 총 1천280필지로 그 중 사유지가 91.7% 정도 된다.

이는 고흥군이 그동안 환경부에서 2019년 완료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 용역을 토대로 공원지역 주민이 바라는 합리적인 구역 조정을 위해 군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해 주민 의견이 대폭 반영된 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일대를 대체 편입 시키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나로도지구 공원구역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관찰하기 위해 국립공원 구역조정 총괄회의를 여러 차례 방문·건의 활동을 펼쳐 얻어낸 값진 결과로 평가 받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공원구역 해제에 따라 앞으로 주민 생활불편 해소



국립공원 해제지역(도화 봉래면 일원).

〈고흥군 제공〉

는 물론 나로우주센터를 축으로 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기반과 10년 후 인구 10만명 달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공유지가 99.9%에 달하는 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일대 가 국립공원으로 새롭게 지정됨으로써 지역 인지도 상승으로 인한 탐방객 증

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에서 자연생태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군비 부담을 덜게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군은 도화·봉래면 일원 국립공원 해제지역 임야에 대해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해제용역을 추진하고, 이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2023년 5월31자로 고시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은 관계 부서 열람을 거쳐 오는 28일자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관계 부서 열람 및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사무소(061-550-09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최봉환 기자



장성군이 초보귀농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장성군 '성공 귀농 품목 전수교육' 현장.

〈장성군 제공〉

장성군, 초보 귀농인 지원 '풍성'

품목 전수교육·영농 정착·농가주택 수리비 등 재전입 '연어 귀농인'에 500만원 정착장려금도

장성군이 초보 귀농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장성군은 "최근 귀농인 대상 지원사업으로 '성공 귀농 품목 전수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고 18일 밝혔다.

'성공 귀농 품목 전수교육'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 중이며 신규 농업인, 초보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촌 생활에 필요한 실용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농업인이 재배 체험 희망 작목을 신청하면 군은 희망자가 모인 작목을 선정해 5회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는 딸기와 감, 블루베리 등이 교육 품목에 포함됐으며 초보 농업인이 희망 작목을 미리 길러볼 수 있어 품목 선택에 도움이 되고 재배 과정의 의문점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군은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연어 귀농인 정착장려금 등 분야별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장성으로 귀농한 지 5년 이내의 귀농인은 자부담 포함 2천만원의 귀농인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500만원 한도로 농가주택 수리비도 보조해

준다.

장성군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살았거나 3년 이상 장성에 거주했다가 재전입한 지 7년 이내인 '연어 귀농인'에게는 농가당 500만원의 정착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사업별 신청 기간이 상이하므로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경영팀(061-390-7180)에 사전 문의하거나 장성군귀농귀촌지원센터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김한중 군수는 "신규 농업인과 귀농인이 성공적으로 장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사업을 꾸준히 발굴·확대 방침"이라며 "귀농귀촌이 희망이 되는 장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구례군, 섬진강·지리산 관광인프라 확충

도펠마이어·가라벤타그룹, 대원플러스그룹 업무협약

구례군이 생태 관광 자원 활성화를 위한 섬진강·지리산 관광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구례군은 "최근 도펠마이어·가라벤타그룹, 대원플러스그룹과 구례 섬진강·지리산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유영광 부군수를 비롯해 도펠마이어·가라벤타그룹 토마스 피츨러 CEO와 대원플러스그룹 최효섭 총괄사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

투자협약을 체결한 오스트리아 업체 도펠마이어·가라벤타그룹은 1988년에 설립된 회사로 전 세계 50개국 지회사 및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업체는 2021년 기준 약 7억6천만 유로(1조 800억원)

의 연간 매출을 기록했으며, 세계 최장 케이블카 설치 실적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인 대원플러스그룹은 구례군의 민·관 합작 대형 프로젝트 첫 번째 야심작인 오산권역 대규모 힐링 여행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3월28일 구례군과 '구례 오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해운대 두산위브 더 제니스 타워, 송도해상케이블카, 시흥 웨이브파크 등을 조성해 랜드마크 디벨로 퍼로 이름이 알려졌다.

업무협약에 따라 도펠마이어·가라벤타그룹과 대원플러스그룹은 사업을 위한 투자, 기술지원, 콘텐츠 개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군은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군의 회의와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광양만경제청, 5천751억 규모 수산화리튬 공장 착공

2025년 준공 목표...연간 2만5천t 수산화리튬 생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전남도와 포스코리튬솔루션(주)이 울진 제1산단 내에 건립하는 5천751억원 규모의 수산화리튬 공장 착공식이 열렸다"고 18일 밝혔다.

착공식에는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박희석 포스코리튬솔루션(주) 대표 등 포스코그룹 임직원, 고객사, 전남도청과 순천시, 광양시 관계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수산화리튬(LiOH)은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소재로 또 다른 핵심원료인 니켈과 함께 배터리 용량과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소재다.

오는 2025년 공장이 준공되면 연간 2만5천t의 수산화리튬을 생산할 수 있으며 관리 및 생산직 직원 210명이 신규고용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보탬이 될 전망이다.

또 수산화리튬 2만5천t은 전기차 63만대에 공급 가능한 양이다.

이번 착공은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수산화리튬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포스코 그룹의 이차전지 소재 일괄 공급망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 할 것

으로 기대된다. /광양=양홍렬 기자



담양군의회, 제320회 제1차 정례회 개최

27일까지 13일간...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처리

담양군의회는 18일 "지난 15일 제320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 오는 27일까지 13일 간 회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청취했고, 이어 21일부터 조례안 17건(의원발의 7·집행부 10) 및 동의안 3건·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

다.

주요 일정으로는 18일부터 3일간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청취했고, 이어 21일부터 조례안 17건(의원발의 7·집행부 10) 및 동의안 3건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2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

회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후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후만 담양군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 예정인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는 2023년 상반기 군정을 총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진행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줄 것을 의회와 집행부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담양=정승균 기자

곡성군 '기차마을 텨넨덤' 이벤트 운영

8월27일까지 '물총 게임' 진행

곡성군은 18일 "섬진강기차마을에서 8월27일까지 '기차마을 텨넨덤'을 주제로 여름철 물놀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차마을 텨넨덤'은 기차마을 입장권 한 장이면 물놀이와 재미는 덩이로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다.

물놀이 이벤트는 섬진강 기차마을 내 음악분수 부근에서 펼쳐진다.

음악분수에서는 시간대별로 음악과 물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어린이 관광객들에게 시원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음악분수를 활용한 물총놀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관광객들은 18일부터 8월15일까지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 하루 2회씩 총 3가지 종류의 물총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게임 운영시간은 오전 11시~오후 2시



이며 수타트랙 파워 게임, 물총 경주, 컵 침몰작전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뿐만 아니라

라 간단한 퀴즈타임, 물총파티도 진행된다. 게임에서 우승한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돼 진정한 텨넨덤 경험을 즐길 수 있다. 또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오전 10시~오후 5시 무료로 물총 대여 서비스가 제공돼 신분증을 맡기면 관광객 1인 당 1개씩 물총을 빌려 2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단, 곡성 아이스크림 페스티벌 기간 중 15~16일에는 '텨넨덤' 이벤트가 운영되지 않는다. /곡성=이효선 기자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챗봇'으로 소통 확대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로 시민 소통에 나선다.

18일 여수시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소통 확대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카카오톡 챗봇을 이달 초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챗봇은 봉황산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정기권 추첨, 수영장 이용 신청 등 크게 6개로 구성돼 있으며 시설 설명과 함께 해당 홈페이지로도 이동도 가능하다.

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통해 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묻고 답을 얻을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을 조회 후 채널 추가를 누르면 된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철저한 관리로 상담 항목을 확대하고 정보의 질도 높일 계획으로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